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패기의 리더



### 거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승자는 누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역사적 만남을 가졌다.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을 벌이는 북미 두 정상이 벌인 '담판'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며, 회담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외교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기질과 업무 스타일을 분석하며 여러가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 김정은은 체제보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기업가로 잔뼈가 굵은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과 광폭행보를 앞세운 '파격의 리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각자 살아온 인생경력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 임한 두 승부사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본산 미국과 소련 붕괴 이후에도 문을 닫아 잠근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며 묵은 정치적 관행을 깨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트럼프는 1946년 뉴욕에서 태어난 독일계 이민 3세대. 뉴욕군사학교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에 편입해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공한 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NBC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때부터 솔직하고 과격적인 언사와 함께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가로서 주목받았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한 트럼프는 2017년 1월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20대 후반이란 이른 나이에 북한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유년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서구

세계를 경험했기에 농구를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 개방적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물꼬, 향후 이행방식 관심**  
김정은 北 체제보장 여부 눈길  
남북·북미 관계 급물살 기대감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는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이란 큰 규모의 거래를 해오던 사업가로서 특유의 직감에 의지해 빅딜을 수행하는 승부사적 기질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어린 시절부터 강한 승부욕을 보여왔다. 김정일의 개인 요리

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구슬 놀이를 하던 김정은이 형 경찰의 조언을 따랐다. 구슬을 놓치지 화가 나서 형에게 구슬을 집어 던진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초에 방북한 남측 특사단에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됐다.

두 정상은 과격한 면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트럼프는 한번 분노하면 정적을 비롯해 비판자를 공개 석상에서 심한 말로 모욕했다. 김정은 역시 권력강화를 위해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한 많은 북한 인사를 처형하거나 숙청했다. 집권 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던 김정은과 협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는 서로 "늑다리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 같은 거친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비록 자유세계 기업가출신과 전제주의 국가 리더라는 큰 차이는 있어도 회담장에서 만난 두 정상은 실리를 위해 과감한 태도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행보를 해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혀 최고조에 오른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단숨에 완화시켰다.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솔직하고 대담한 태도로 국제사회에 호감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때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다가 금방 재개를 선언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회담성사에 대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만큼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어낼 거란 전망이 다수다.

다만 양국간 신뢰문제와 얽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는 만큼 합의된 내용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만일 폭넓은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먼저 진행한다면 트럼프가 '유리한 거래'를 한 셈이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체제보장을 먼저 받는다면 김정은의 '파격적 승부'가 성공한 셈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사진/연합뉴스

## 주요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성명

전경련·경총·대한상의 등 "경제협력·공동번영 위해 노력"

주요 경제단체는 12일 성공적으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확인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북미회담은 평화와 공존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회담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합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찾아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70년 동안 남북간 대립과 반목을 끝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앞으로 이어질 남북회담과 후속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역할을 다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계기로 향후 남북경협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매

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동안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가동을 비롯한 여러 의미 있는 남북 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추진 지원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국내기업 신인도 향상으로 국내 소비 및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총은 책임 있는 경제단체로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도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남북 경협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될지도 반신반의했는데 심지어 빠른 속도로 다 이뤄졌으니 향후 경협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인 의류업체 신원 관계자는 "회담을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성공적으로 끝난 듯해 회사 내부적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개성공단기업 협회를 통해 재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 '뺏은 듯 다른' 북미 정상의 스타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드레스코드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인민복 vs 붉은 넥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짙은 갈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것과 대조됐다.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로 들어선 김정은은 줄무늬가 없는 검은색 인민복에 왼손에는 검은색 서류철을, 오른손에는 안경을 들었다.

인민복은 사회주의국가 지도자의 '상징'이다. 과거 중국의 지도자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민복을 자주 입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입고 나온 인민복은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때 입었던 옷과는 달리 줄무늬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즐겨 매는 강렬한 색상의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어 일각에서는 이 붉은색 넥타이를 '파워 타이'라고 부른다.

**실용성 중시 vs 예측 불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실리적인 이득을 얻는데 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좋아



한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비터 차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놀랄 준비 하라. 두 지도자는 사람들이 놀라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기존 남북 대화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첫 만남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땅을 밟을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도보다리 대화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작은 것에 매이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상반된 성격도 지니고 있다. 싱가포르 디스트레이트타임스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스러운 리더십을 구사하고 직감을 중요하는 스타일인 반면, 김 위원장은 냉정한 실용주의자이며 교활한 협상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의 최우선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그의 측근들도

속내를 짐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김 위원장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같은 동포로서의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이 37살·키 20cm 차이**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는 올해 만 71세이다. 생일이 6월 14일이기 때문에 곧 72살이 된다.

이에 반해 1984년 1월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는 만 34세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37살 차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977년생으로 만40세이고 1981년생인 장녀 이방카는 만36세로 둘다 김정은 위원장보다 나이가 많다. 두 정상 모두 체구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키가 190cm로 장신인 반면 김 위원장은 170cm로 추정된다. /신원식 기자 tree6834@